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 구축과 운영에 관한 단상

박철희

이 글은 2016년 처음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East Asian Consortium of Japanese Studies, EACJS, 이하 ‘협의회’)의 구축에 이르게 된 과정과 운영의 기본구상, 그리고 ‘협의회’의 연속 개최에 이른 경위를 기록에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쓴 것이다. 필자는 2013년 동아시아지역 일본연구소 소장들의 모임인 ‘동아시아 일본연구포럼’에 참가한 이후, 동아시아의 일본연구자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학술 토론과 협의의 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서 2016년에 걸친 2년 동안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대만에 있는 일본연구기관들의 대표들과 상담 및 협의를 지속하면서 ‘협의회’ 발족을 구체화시켜 나간 바 있다.

그 결과, 첫 번째 결실을 맺은 것이 2016년 12월 초 한국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였다.

박철희(朴喆熙)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장, 현대일본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박사. 주요 저서에 『代議士のつくられ方』(2000),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2011), *National Identities and Bilateral Relations*(공저, 2013) 등이 있다.

이후 2019년 11월 초 대만 타이페이(台北)에서 열린 제4회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에 이르기까지 필자는 대표발기인이자 운영위원의 일원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한 바 있다. 아직 학회로 발전하지 않은 형태의 ‘협의회’에 관해서 현 단계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이 조직의 구상과 발족, 운영에 관한 집단적 기억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 이 글을 쓰기로 하였다.

‘협의회’는 2016년 첫 발족 모임을 가진 이래 2019년 제4회 국제학술대회에 이르기까지 순조로운 발전을 계속하고 있으나, 구상의 첫 단계 및 발족에 이르기까지 순탄한 과정을 겪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동아시아 일본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초기 상당한 논란과 회의적 시각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며, 여러 우여곡절 끝에 탄생에 이르렀다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또한 공식적인 발족에 성공한 2016년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협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경에도 불구하고 순조로운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동 조직의 구상에서부터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한 조직의 효율화과정, 그리고 발족에 이르기까지의 협의의 내용 및 구체적인 운영과정을 되도록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향후 ‘협의회’를 비롯한 역내 학술적 교류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이 학제적 연구 및 국경을 초월한 학문의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적는다.

1. 동아시아 일본연구포럼에서 시작한 ‘협의회’ 발상(2013~2014)

동아시아 일본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발상은 ‘협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도 존재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한양대학교 일본학 국제비교연구소 소장 이강민(李康民) 교수와 베이징일본학연구센터 소장 쉬이핑(徐一平) 교수가 주축이 되어 일본국제교류기금의 후원을 받아 조직하기 시작한 ‘동

〈표 1〉 동아시아 일본연구포럼 개최 역사

개최 횟수	개최 지역	개최 기간	참가국가
제1회	한국 제주	2010. 12. 4.~12. 5.	한, 중, 일(32명)
제2회	일본 마쓰시마(松島)	2011. 12. 8.~12. 9.	한, 중, 일, 대만(26명)
제3회	중국 베이징(北京)	2012. 11. 3.~11. 4.	한, 중, 일, 대만(26명)
제4회	한국 부산	2013. 12. 7.~12. 8.	한, 중, 일, 대만, 러, 몽골(25명)
제5회	일본 아와지시마(淡路島)	2014. 12. 6.~12. 7.	한, 중, 일, 대만, 러, 몽골, 에스토니아(26명)
제6회	중국 텐진(天津)	2016. 3. 19.~3. 20.	한, 중, 일, 대만(26명)

자료출처: 일본국제교류기금

아시아 일본연구포럼'(東アジア日本研究フォーラム)이었다. 이 포럼은 2010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은 물론 러시아, 몽골의 일본연구기관의 장들이 모여 일본연구를 학제화, 광역화시켜 동아시아지역의 일본연구를 진흥하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주로 동아시아 지역 내 일본연구소장들이 모여 자국의 일본 연구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의 과제를 다루어 보는 형식의 포럼이 매년 개최되었다(〈표 1〉).

이 포럼은 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일본연구기관들과 기관장들의 횡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연구 영역을 확인하고, 참가 기관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관 간 협력과 공동연구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다.²

2012년 9월 1일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으로 취임한 필자는 2013년 12월 7~8일 부산에서 열린 동아시아 일본연구포럼에 초대를 받아 '한국에서의 일본 연구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 포럼에서 필자는 동아시아지역 일본연구기관의 장들 간의 의견교환 및 정기적인 만

1 동아시아 일본연구포럼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참가자에 대한 자료를 찾고 확인해 준 국제교류기금 서울센터 고은강 차장님께 감사드린다.

2 국제교류기금의 제1회 사업보고서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시대와 지역의 차이에 따른 일본연구의 시점의 차이를 음미하고 기존의 학문체계와 연구방법에 사로잡히지 않는 새로운 일본연구의 지평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일본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 지적 네트워크의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남도 중요하지만, 일본연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참여자의 숫자를 대폭 늘리는 ‘대중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일본연구의 차세대들을 포함한 학술회의의 개최를 통해 일본연구의 지역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다수의 일본연구자들이 참가하는 대중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사무국의 지원 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필자로서는 일본연구소장들 간의 네트워킹만으로는 일본연구의 지역적 부흥 및 연구기관 간의 횡적 연대 구축에 한계가 있을 것임을 절감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부산회의 참가 이후 일본연구의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광역화 가능성에 대한 실천적인 구상을 거둬하던 필자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설립 10주년이 되는 2014년 11월 19일 하루 전 동아시아지역 일본연구자들을 모아 집단 지성의 지혜를 빌리기로 하였다. ‘일본연구소 설립 10주년 기념 주간 심포지엄’의 일환으로 11월 18일 오후에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네트워크 구상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열어 ‘한중일 일본연구기관 협의체 구상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집중토론회를 가졌다. 동아시아의 일본연구기관 대표자들과 한국의 학회 회장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였다.

이 워크숍에서 필자는 ‘미국, 유럽 등 타 지역에 일본연구자들의 광역네트워크가 있는데 반해, 일본과 일본에 가까운 한국, 중국, 대만에 그러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가사의하다’라는 말로 네트워크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의 일본연구자가 많은 것이 오히려 네트워크 구성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지만, 연구자의 숫자도 많고 연구의 질도 높은 것, 그리고 일본어가 능한 연구자들이 많은 것이 네트워크 만들기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학회를 만들려는 욕심을 내지 말고 개별 학회나 연구기관들이 일 년에 한 번 정도 3박 4일 정도 만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은 현실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³

3 이 회의의 논의 내용소개는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회의 녹취록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밝혀 둔다.

〈표 2〉 2014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워크숍

일시	2014년 11월 18일 13:30~18:30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
주제	한중일 일본연구기관 협의체 구상의 모색
주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참가자	박철희(서울대 일본연구소장) 한영혜, 이은경, 진필수(서울대 일본연구소) 오치아이 에미코(落合惠美子)(교토대 문학부 교수) 송즈웅(宋志勇)(중국 난카이대학 일본연구원장) 루하오(卢昊)(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이강민(한양대 교수, 전 한국일본학회 회장) 고지마 히로유키(小島寛之)(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센터소장) 이마니시 준코(今西淳子)(아쓰미국제교류재단) 유재진(고려대 일본연구소장) 김상준(현대일본학회 회장) 서정완(한림대 일본연구소장) 윤병남(역사학회 회장 & 전 일본사학회 회장) 이원덕(국민대 일본연구소장)

오치아이 에미코(落合惠美子) 교수는 네트워크화 구상에 동의하면서 ‘동아시아의 일본연구가 질적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른 지역에 소개되었는가’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즈웅(宋志勇) 원장도 일본연구자들이 국제적, 학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며, 기존의 일본연구기관과 학회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중국 사회과학원 루하오 씨는 중국 내의 젊은 연구자들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문제의식의 부족, 개인주의화, 경험의 부족 등이 자신의 이익을 넘어선 협력을 어렵게 한다면서 일본연구의 광역 네트워크화에 찬동하였다. 이강민 교수는 네트워크는 만드는 것보다 유지가 어렵다면서 사람과 사람 간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고지마 히로유키(小島寛之) 소장은 미국과 유럽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기금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 1,040명, 한국에 1,077명의 일본연구자가 존재한다는 잠재력을 소개해 주었다. 이마니시 준코(今西淳子) 씨는 아쓰미국제교류재단(渥美国際交流財団, 이하 아쓰미재단)에서 길러낸 장학생들을 중심으로 2년에 한번씩 ‘아시아미래회의’를 개최 중인 경험을 소개하였다. 대부분의 워크숍

참가자들이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전향적으로 찬성을 해 준 것은 필자가 후일 ‘협의회’ 구상을 추진하는 데 아주 커다란 밑거름과 힘이 되었다.

2014년 12월 6~7일 일본 아와지시마(淡路島)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일본연구포럼’에 참가한 필자는, 2013년 포럼의 문제제식과 2014년 워크숍 논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지역 일본학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일본연구자협의회 구축에 관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미주지역에는 1941년 결성된 AAS(Association of Asian Studies)가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유럽지역에는 베를린자유대학을 중심으로 1973년부터 발족된 EAJ(European Association of Japanese Studies)가 조직되어 2014년 당시 매년 1,000여 명의 일본연구자가 교류를 하고 있었으며, 다른 지역보다 늦었지만 동남아시아에도 2005년 JSA-ASEAN(Japanese Studies Association-ASEAN)이 만들어져 있었다. 반면,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지역에는 수많은 일본연구기관과 일본연구자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횡적 네트워크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가칭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東アジア日本研究者協議会)를 조직하자는 대담한 제안을 내놓은 것이었다.⁴

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일본연구자들의 학회의 형태로 끌어들이는 데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일본연구포럼이 지향하고 있는 일본 연구기관 간의 횡적인 지적 네트워크인 ‘협의회’(consortium)를 구축하여, 매년 3박 4일 정도의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일본연구의 박람회’(日本研究の博覧会)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였다.⁵ 이 경우 기획 패널은 협의회가 재단 등에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고 나머지 대부분 패널은 각각의 참

4 당시 2014년 12월 7일 발표한 논문의 일본어제목은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研究者協議会の構築に関する提言」이었다. 필자가 가칭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회의였다.

5 상기 논문에서 필자는 “이미 존재하는 학회나 네트워크를 없애거나 전체를 통합하려는 건 꿈에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기존의 조직을 원만히 활용하면서 ‘네트워크형 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하였다.

가기관이 조직하는 방식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서로 끌어안는 방식을 취하면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연구 대상 국가의 언어인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갈라졌으나 회의적인 시각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동아시아 일본연구포럼’과의 중첩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둘째, 일본연구자들이 모여 공동의 학술회의를 만드는 것은 찬성이지만, 누가 그리고 어느 기관이 주축이 되어 이를 구성하고 운영하느냐가 논란의 초점이 되었다.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여부, 비용 등에 대해서도 우려가 컸다. 나아가, 학술대회의 성과를 담은 새로운 학술저널의 운영과 언어 등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는 못했다. ‘협의회’ 구상이 표면으로 부상하기는 하였지만, 현실화의 단계에 이르기에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와지시마의 포럼 당시 발표한 필자의 의견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관심을 보여 준 이는 옵서버로 참석했던 아쓰미재단의 이마니시 준코 씨와 쓰노다 에이이치(角田英一) 씨였다. 아쓰미재단은 이 당시 이미 재단 장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를 순회하는 국제 학술회의를 구상하여 실현하는 단계였기에 필자의 구상도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직감하고 있었다. 특히 쓰노다 씨는 이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해 난관을 헤쳐 나갈 방법을 함께 구상해 보면 좋겠다는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포럼이 끝나 갈 무렵 필자에게 다가와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의사를 밝혀 준 것은 대만국립대학 일본연구센터 소장이었던 쉬싱칭(徐興慶) 교수였다. 그는 특히 필자가 주창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을 통한 일본학의 진흥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대만 측 참석자들에게 대만에 돌아가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결합을 당장 추진해 보자는 즉석 제안도 내놓았다. 쉬싱칭 교수는 이 모임 이래 필자가 추진하는 ‘협의회’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필자의 구상에 대해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이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국제교류기금의 입장에서 보자면, ‘협의회’는 그야말로 자신들이 만들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만들고 싶은 조직이었을 것이다. 미주, 유럽, 동남아는 물론 오세아니아에서까지 일본연구자들의 학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독 동아시아 지역만이 빠져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싶은 것은 국제교류기금으로서는 당연한 희망이었다. 당시 참가했던 시미즈 준이치(清水順一) 일본연구지적교류부장, 하야세 도모노리(早瀬智則) 아시아태평양 팀장 등 많은 기금 관계자들이 아와지시마 회의 이후 필자와 이런 저런 자리에서 구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준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이었다. 그들은 필자의 구상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조심성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협의회’라는 구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필자와의 의사소통을 멈추지 않았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동아시아 일본연구포럼의 참가자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은 필자의 ‘협의회’ 구상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그 실현 가능성과 책임 및 비용의 분담 문제, 기존 조직과의 정합성 문제 등에 더 많은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일본연구포럼’이라는 학제적, 국제적 일본연구 논의의 장이 필자가 ‘협의회’를 구상하고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이 포럼의 연장선상에서 ‘협의회’ 결성이 논의되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동아시아 일본연구자들과의 ‘협의회’ 구축 논의의 구체화(2015~2016)

2015년에 접어들자 아와지시마에서의 ‘협의회’ 기본 구상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두 기관에서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요청해 왔다. 먼저 필자를 초청하여 ‘동아시아 일본연구의 신 단계’(東アジア日本研究の新段階) 발상을 과감하게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대만국립대학 일본연구센터의 쉬싱칭 소장이었다. 쉬싱칭 소장은 협의회 구상이 동아시아 일본연구

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생각을 필자와 완전히 공유하고 있었다.

2015년 3월 5일부터 8일까지 타이페이(台北)를 방문한 필자는 3월 6일 대만국립대학 일본연구센터에서 동아시아의 연구 환경을 세 가지 차원에서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나는, 자국의 경계를 넘어서는 동아시아지역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점점 축소지향성을 보여 주고 있는 일본연구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일본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의 횡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초국경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동아시아에 수많은 일본연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감이 약한 이유의 하나는 인문학 전공자와 사회과학 전공자들 간의 단절된 대화와 교류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본연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벽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일본연구자들의 융합을 도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는 기성세대 일본연구자들과 차세대 일본연구자들의 학문적 교감의 확장이었다. 특히,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차세대 일본연구자들을 과감하게 포용함으로써 침체하고 있는 일본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⁶

필자의 구상에 공감하면서 과연 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진지한 토론의 장을 열어 준 것은 아쓰미재단이었다. 2014년 말 필자의 구상을 직접 접했던 이마니시 씨와 쓰노다 씨는 아쓰미재단의 정기포럼에 필자를 초청하여 과연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 구상’은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를 펼쳤다. 필자의 구상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어찌면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것이 곧 아쓰미재단이었다. 앞서도 언급했듯 아쓰미재단이 재단의 장학생들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이미 시작한 ‘아시아 미래회의’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아쓰미재단의 경험의 전수와 현실적 조언들은 협의회 구성

6 이 강연에서 제시한 ‘월경’(越境) 또는 ‘초국경’(超国境), ‘융합’(融合), 차세대 또는 ‘미래’(未來)라는 용어는 후일 ‘협의회’의 기본 정신으로 채택되었다.

〈표 3〉 아쓰미재단 아시아미래회의 개최 실적

개최횟수	개최기간	개최장소	전체 주제
제1회	2013. 3. 8.~3. 10.	타이 방콕	세계 속의 아시아: 지역협력의 가능성
제2회	2014. 8. 22.~8. 24.	인도네시아 발리	다양성과 조화
제3회	2016. 9. 29.~10. 3.	일본 기타큐슈	환경과 공생
제4회	2018. 8. 24.~8. 28.	한국 서울	평화, 번영, 그리고ダイナ믹한 미래
제5회	2020. 1. 9.~1. 13.	필리핀 마닐라	지속적인 공유형 성장

자료출처: <http://www.aisf.or.jp/AFC/>

에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2015년 7월 18일 필자는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에 대한 호소’(東アジア日本研究者協議会への呼び掛け)라는 제목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의회 조직 방식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먼저 동아시아 일본연구를 타 지역과 비교 하면, 이 지역에서의 일본은 사실상 ‘자기 안의 타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많은 숫자의 일본연구자가 있지만 학회가 지나치게 분화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집단논쟁을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개별연구가 유행하고 있어 지식공동체를 창출할 필요성과 더불어, 민족주의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국경의 벽을 넘어서는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첩경 이라고 주장하고, 협의회 구성에서 세 개의 원칙을 지켜 나가자고 제창하였다. 첫째, 연구성과를 국제적으로 발신하자는 ‘국제성’(國際性), 둘째, 공동연구의 길을 열자는 ‘공공성’(公共性), 셋째, 학제적 교류의 심화를 통해 일본학을 진흥하자는 ‘융합성’(融合性)의 원칙이었다.

이러한 원칙 위에서 협의회 조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내놓았다. 우선, 상시적인 협의회 조직을 운영하기보다는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국가 및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국가 및 지역 순환 방식’을 제안하였다. 한 국가나 지역, 또는 한 기관의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이기도 하였다. 둘째, 바로 ‘동아시아 일본연구학회’로 진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

문에 먼저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라는 컨소시엄 즉 협의회를 만들어 10여 년 정도 운영한 후, 참가자수가 1,000명 정도의 규모에 이르렀을 때 학회로 전환하자는 ‘2단계 방식’을 제시하였다. 셋째, 일 년 내내 협의회를 가동하기보다는 1년에 한 번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학술회의를 조직하고 일본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개방형 조직’을 제안하였다. ‘대중 개방형 조직’을 통해 참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발상이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회의를 조직하는 기관에 많은 경비가 소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자는 학술회에서 세션을 조직하는 기관이 스스로 경비를 조달하는 ‘자기부담방식’(割り勘方式)을 내세웠다. 다섯째, 차세대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국제학술회 참가가 용이하지 않기에, 외부에서 참가경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제안했다.

필자에게는 만약 협의회가 구성되기만 한다면, 국제교류기금이 차세대 연구자들에게 일본연구 진흥을 위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암묵적인 교감이 있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필자는 처음으로 2016년 12월 초에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송도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였다.

아쓰미재단의 세미나를 통해 협의회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다음, 필자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를 통해 협의회 구상에 참여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일본연구기관들의 의향을 확인하고 섭외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먼저 한국 측 일본연구기관 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 한국일본학회 회장이자 동아시아 일본연구포럼 발기인인 이강민 교수와 동학회의 주축인 고려대학교 정병호 교수,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인 서승원 교수 등과 2015년 7월 30일 저녁 ‘기리야마’라는 우동집에서 회동하여 ‘협의회’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⁷ 2015년 8월 6일에는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의 오사와 마리(大沢まり) 소장을 만나 필자의 구상

7 이 모임에서 2015년 9월 7일 경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국제학술회의를 열고 국내 유수의 일본연구기관장들과 동아시아 ‘협의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사회과학연구소 차원에서 동
참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오사와 소장은 필자의 구상에 동조하면서도
과연 다른 일본연구기관들이 자신들의 ‘에고’를 버리고 순탄하게 참여할지,
협의회에 대한 우려를 솔직히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협의회가 출범한다면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도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겠다는 다짐도 받았다.

이후 필자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속 교수 및 연구원들과 협의회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숙의를 거듭하였다. 2015년 8월 30~31일
에는 인천 송도에 있는 웨라톤호텔에서 연구소 구성원 전원이 워크숍을 개
최하여 연구소 활동의 재점검뿐 아니라 ‘협의회’를 실천단계로 옮겨 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웨라톤호텔 바로 옆에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송도 컨벤시아(Songdo Convensia)라는 거대한 공공 회의시설이 있었다. 이곳
에서의 숙박과 시설의 견학은 그 후 제1회 협의회 학술대회 현실화의 발판
이 되었다.

송도 컨벤시아 견학을 마친 필자는 ‘협의회’ 조직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
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 2015년 9월 7일에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주
최하는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네트워크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의 쑹즈
용 교수, 대만의 쉬상칭 교수, 일본의 쓰노다 씨 등을 초빙하여 ‘협의회’ 구
상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실체임을 주장
하였다.⁸

이 회의에서 사실상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의 중요한 참가기관의 윤곽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커다란 진전이었다.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
었지만, 어떻게 하면 이를 실현할 수 있고 누구에게 말을 걸어 더 많은 일본
연구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들이 오갔다. 이
회의는 사실상의 제1차 협의회 발기인 연석회의에 가까웠다.

이 세미나에서 필자는 2016년에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

8 이 세미나에서 필자는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에 대한 호소」(東アジア日本研究者協議会辺の呼び掛け)라는 제목으로 아쓰미재단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4〉 2015년 9월 7일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네트워크 회의 개요

일시	2015년 9월 7일 14:00~18:00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
주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주제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추진전략
참가자	박철희(서울대 일본연구소장) 쉬이핑(徐一平)(베이징외국어대학 일본학연구센터 소장) 쉬상칭(대만국립대학 일본연구센터 소장) 이강민(한양대 교수) 하야세 도모노리(早瀬智則)(일본국제교류기금 아시아태평양팀장) 이마니시 준코(今西淳子)(일본 아쓰미재단 이사) 쓰노다 에이이치(角田英一)(일본 아쓰미재단 사무국장) 남기정, 조관자(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자료출처: 서울대 일본연구소

인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회 발족의 취지에 동의하는 발기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기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각국 내 복수의 일본연구기관에게 말을 걸고 참가를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협의회’의 기획 패널과 차세대 패널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일본국제교류기금에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국제교류기금 관계자도 참석한 회의였던 관계로 본부에 복귀하여 이 아이디어를 보고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질도 받았다. ‘협의회’ 개최를 위한 구체안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세미나가 열린 이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본격적인 ‘협의회’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실전 전력 보강을 위해 인력도 충원했다. 마침 대학 근무와 학회 경험이 풍부한 김태기 박사가 지원하여 HK연구교수로 채용되었기에, 그에게 2016년 ‘협의회’ 준비를 총괄하도록 당부하였다.⁹ 국제교류기금도 2016년 ‘협의회’ 개최를 위해 손을 거들어 주었다. 2015년 말 열릴 예정이었던 ‘동아시아 일본연구포럼’은 일본 국제교류기금

9 그는 준비위의 중추가 되어 ‘협의회’가 개최되기 직전까지 혼신의 열정을 다해 ‘협의회’의 설계와 조직에 헌신하였지만, 불행하게도 건강상의 이유로 ‘협의회’ 개최 직전인 2016년 11월 일본연구소를 사직하고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과의 협의 등을 통해 2016년 3월 중국 개최로 조정되었다. 보통은 매년 연말에 개최되지만 2016년 하반기에 ‘협의회’를 개최하니, 일정을 변경하여 ‘협의회’ 발기인 성격의 모임으로 개최하자는 제안에 국제교류기금과 포럼의 주요 멤버가 찬동해 주었던 것이다.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 톈진(天津)의 난카이(南開)대학에서 열린 ‘동아시아 일본연구포럼’에는 다수의 일본연구기관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2016년 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제1회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를 주최할 의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 단계에서 필자의 적극적인 구상에 동조하면서 자신들도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 도쿄외국어대학 국제일본학센터 소장이었던 도모쓰네 쓰토무(友常勉) 교수였다.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도모쓰네 교수는 필자와 평소 면식이 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자리를 함께하면서 필자의 구상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미국에서의 AAS 참가 경험이 많았던 관계로 도모쓰네 교수와 필자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이와 같은 ‘협의회’ 구성을 통한 일본학의 진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때마침 도쿄외국어대학은 당시 ‘국제일본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활동무대를 넓혀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 당시는 마침 일본 문부성의 협력과 지도하에 도쿄외국어대학, 메이지대학, 법政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국제일본학’을 진흥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3.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 제1회 대회의 준비와 개최(2016)

톈진에서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로는 2016년 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2016년 3월 17일에는 인천 송도 컨벤시

아 관계자들을 만나 회의장의 확보, 동선의 체크, 식사 장소 등의 제공, 홍보 부스의 설치 장소 및 방법 등 다양한 실무적인 점검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텐진에서의 모임에서 새삼스레 알게 된 것은 한국에서 가장 큰 일본관계학회인 ‘한국일본학회’의 ‘협의회 참여’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필자는 한국일본학회 전 회장이었던 이강민 교수에게 한국일본학회의 참여를 독려해 주도록 여러 차례 부탁한 바 있었으나, 텐진에서 만난 당시 한국일본학회 회장인 안평호(安平鎬) 교수로부터 ‘협의회’에 관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내 다양한 일본연구기관과 학회로부터 협력을 얻을 수 있느냐가 ‘협의회’ 조직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었다. 후일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의 원장이 된 정병호 교수는 필자와 평소 안면이 있었는바, 당시 학회의 부회장으로서 솔직하게 학회에서 의견통일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털어 놓았다.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바로 안평호 회장, 정병호 교수와 약속을 잡은 필자는, 2016년 4월 15일 일본연구소 서동주 교수를 대동하고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그들을 만나 한국일본학회의 참여를 종용하였다. 학교 공식 일정 때문에 한 시간 정도 늦게 약속 장소에 나타난 안평호 회장은 필자의 설명을 경청한 후 불과 20분도 안 되어 ‘무조건 지지하고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놀랄 정도로 기쁜 소식이자 천군만마와 같은 응원군의 확보이기도 했다.

한국일본학회의 참가가 결정되면서 한국 내 다른 일본연구기관의 참여는 비교적 용이하게 설득할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한국 내 일본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은 평소 필자의 호소에 모두 긍정적으로 응해 주었다.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서승원 원장,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 이원덕 소장,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진창수 소장, 현대일본학회 전진호 회장, 역사학회 윤병남 회장, 한림대학교 일본연구소 서정완 소장 등 대부분의 일본연구기관장들이 ‘협의회’ 패널 조직에 나서겠다고 기꺼이 약속해 주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의 협의를 거쳐 제1회 대회 날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박 3일로 결정되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송도 컨벤시아 예약과 웨라톤호텔과의 실무 협의였다. 참가자들의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많은 개수의 객실을 확보하고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획정하는 데 노력하였고, 호텔 측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협조해 주었다. 이어 일본연구소 준비위는 프로그램의 대강을 설계하고 각국의 참가자들과의 소통 기반이 되는 홈페이지 구축에 돌입하였다. 회의 개최 최소 6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와 참가 수속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정연우 행정실장을 비롯한 준비위원 아니라, 모든 연구소 교수, 조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에 집중하였다.¹⁰ 그 결과, 2016년 6월경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협의회’ 개최의 일정 공개 및 등록 안내를 할 수 있었다.

국제학술회의를 조직함에 있어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준비위는 필자의 구상에 기반을 두고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각 세션의 기획과 조직은 참가기관들의 재량에 맡기되 가능하면 5명 정도로 구성하고, 되도록 자국 이외의 참가자가 토론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세션별 준비 및 인원의 동원, 비용의 부담 등을 자체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여 이에 대한 주최 측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둘째, 차세대 패널 참가자들에 관해서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의 협력을 얻어 30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을 선발하여 참가하도록 유도하였다.¹¹ 셋째, 회의 전체를 관통하는 기조강연의 경우에도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지원을 얻어 일본연구를 대표하는 명사를 초빙하기로 하여, 문화청장을 지낸 아오키 다모쓰(青木保) 교수를 섭외하였다. 넷째, 참가자들에게는 개인별 혹은 주최 세션별로 참가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다.¹² 다섯째, 참가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간담회 형식의 리셉션을 개최하기로 하여, 한일경제협회(韓日經濟協會)가 흔쾌히 리셉션의 후원을 약속하였다. 회의 기간 중의 점심식사를 해결할 방법을 궁리하던 중, 야마사키

10 당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는 남기정, 조관자, 이은경 교수가 초기부터 ‘협의회’ 구상 발전에 적극 기여하였고, 준비위는 서동주, 김효진 교수가 총괄했으며, 실무를 책임진 것은 김태기 교수였다.

11 발기인 5명과 참가 기관들에게 추천을 받아 참가희망자 일람을 작성한 다음, 역으로 각국의 발기인들에게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가와 지역별로 가급적 균등한 인원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했다.

12 참가자들이 내는 참가비는 회의실 대여, 자료집 제작과 복사 등만으로 이미 소진될 정도였지만, 기존의 학회들과는 달리 스스로 참가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자기책임성을 높려 가는 방식을 취했다.

히로키(山崎宏樹) 국제교류기금 서울센터 소장이 본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대회 참가자들에게 오찬을 제공하겠다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덕에 큰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한 취지 설명을 들은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도 자료 인쇄비 등의 명목으로 대회 개최 비용 일부를 선뜻 지원해 주었다. 대회 준비를 위한 이와 같은 모든 구상은 이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준비위와 필자 사이에서 오래 협의하며 조정했던 것으로, 불필요한 불협화음은 거의 없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2016년 8월부터는 정례적으로 ‘협의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필자의 메모에 남아 있는 일본연구소에서 열린 공식 준비위 회의만도 2016년 8월 18일, 10월 6일, 10월 18일, 10월 27일, 11월 10일, 11월 17일, 11월 24일 등 일곱 차례였다.

준비위 회의에 그치지 않고 2016년 10월 21일에는 일본연구소 주최의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발기인들을 초청하여 막바지에 이른 ‘협의회’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참여 독려를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다. 발기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협의회’의 운영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12개의 기관으로 정하였다. ‘협의회’ 구성 패널의 사회도 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기관의 소장이 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차세대 패널 참가 희망자들에 대한 최종 사정을 하고 이를 확정하는 자리로도 활용하였다. 사전에 발기인들에게 송부했던 자료를 바

〈표 5〉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네트워크 국제세미나 개요

일시	2016년 10월 21일 13:30~17:30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40-2동 201호
주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주요 참가자	박철희(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남기정, 조관자, 김태기, 이은경, 서동주, 김효진(서울대 일본연구소) 쉬상칭(대만국립대학 일본연구센터 소장) 사노 마유코(佐野真由子,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이강민(한양대 교수) 서승원(고려대 일본연구소장) 안평호(성신여대교수, 한국일본학회회장) 하야세 도모노리(早瀬智則, 일본 국제교류기금 아시아태평양팀장)

자료출처: 서울대 일본연구소

탕으로 엄정하게 심사한 리스트를 검토한 후, 30명을 선정하였다.

철저한 준비와 사전 조정을 거쳐 마침내 ‘협의회’ 발족식 및 제1회 국제 학술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열렸다.

개회식 모두 발언에서 필자는 처음 참가하는 일본연구자들을 위해 동아시아 일본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위와 철학, 구성방식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였다. 먼저 ‘협의회’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타 지역에는 존재하는 일본연구자들의 횡적 네트워크가 동아시아에는 부재한 현실에 대한 반성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는 일본연구자들의 수가 풍부하여 국내시장이 크기 때문에 자국 중심의 일본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일본연구의 진흥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 레벨의 공동 학습의 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즉, ‘국제 공공재’로서의 일본연구자의 공동재산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였다. 또한, ‘협의회’ 구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조직상의 혁신이었던 점도 밝혔다. 첫째, 국가와 지역을 돌아가는 ‘순환형 개최방식’을 통해 특정 기관의 선전장이나 홍보라는 오해를 불식시킨 점, 둘째, 비용의 자기부담방식, 즉 ‘와리깡’(割り勘) 방식을 통해 주최기관 및 참가기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 점, 셋째, 대회의 공식 언어를 일본어로 설정함으로써 일본연구자들의 정체성을 살리고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한 점 등이었다.

‘협의회’ 개최가 최초였던 관계로 기조강연 이후에는 필자를 포함한 발기인 5명이 단상에 올라 패넬 토론을 통해 ‘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주최 측 및 발기인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준비 및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 국제학술 대회에는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의 4개국 38개 기관에서 총 337명이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예상보다 대규모 학술회의가 된 것에 만족을 표하였고, 서로 다른 국가 및 지역, 서로 다른 분야의 일본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



〈그림 1〉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 제1회 학술회의 개회식 후 기념사진

일 수 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위는 개회식 당시 찍었던 참가자 전체의 사진이다.

신속한 소통을 위한 무전기와 눈에 잘 띄도록 발랄한 핑크색 복장으로 무장한 스태프들의 일사불란한 활약이 참가자들의 찬사를 받는 등, 대체로 만족스러운 진행이었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다. 12월 1일 한일경제협회가 주최하는 공식 리셉션장에서 김윤 회장 대신 참석한 이종윤 부회장의 인사말이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가 마련된 음식의 뚜껑을 열고 식사를 시작해 버린 것이다. 오랜 회의로 시장했던 탓이겠지만, 이로 인해 후원기관의 축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어수선했었다. 리셉션이 끝난 후 필자와 일본 연구소 관계자들이 후원기관 관계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광경이 연출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그 외에는 전체적인 진행에 그다지 큰 무리가 없었다고 자평한다.

학술대회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12월 2일 오후에는 발기인 전체 및 각 국가 및 지역의 주요 참가기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회의를 총괄하고 다음번 회의 개최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당시 운영위원회에는 5명의 발기인들과 10월 21일 세미나에서 정한 12개 운영위원 구성 기관들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였다.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다음 개최지 결정이었다. 각 나라와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하자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다음번 대회 개최를 주관하느냐는 아직 불투명했다. 그런데 서승

〈표 6〉 2016년 제1회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원 및 기관

국가 및 지역	구성 기관
발기인 (5명)	박철희(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쉬이핑(徐一平)(베이징외국어대학 일본학연구센터 소장) 이강민(한양대 교수)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소장) 취싱칭(대만국립대학 일본연구센터 소장)
중국 (3개)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베이징외국어대학 일본학연구센터 난카이대학 일본연구원
대만 (3개)	대만국립대학 일본연구센터 대중(台中)국립과학기술대학 일본연구센터 대만 일본어교육학회
일본 (3개)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도쿄외국어대학 국제일본센터 고베대학 국제연계추진기구 아시아종합학술센터
한국 (3개)	한국일본학회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서울대 일본연구소

자료출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원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소장이 어차피 다섯 번째 개최는 한국으로 돌아올 터이니 고려대학교가 5회 학술대회의 주최기관이 되겠다고 선수를 치고 나왔다.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아주 고마운 한 수였다. 서 원장에 이어 대만국립대학의 취싱칭 소장이 중국과 일본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터이니 대만이 네 번째 주최기관이 되겠다고 자청했다. 대만과 중국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들은 빨리 주최하고 싶지만 네 번째 주최기관으로 만족하겠다고 뒤로 물러선 격이었다.

서승원 소장과 취싱칭 소장의 발언으로 개최지와 주관기관의 순서는 자연스럽게 역순으로 정해지는 방식이 되었다. 다섯 번째와 네 번째 주최기관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이 남았고, 발기인 두 명이 고마쓰(小松) 소장과 쉬이핑 소장이었던 관계로 어느 쪽이 먼저하고 어느 쪽이 나중에 하느냐가 관심사가 되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고마쓰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통칭 니치분켄, 日文研) 소장은 2017년이 센터의 70주년이 되는 해로 커다란 행사가 겹쳐지는 관계로 가능하다면 일본은

2018년에 개최 주관기관이 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자연스레 참석자들의 눈은 쉬이펑 소장에게 돌아갔는데 쉬이펑 소장은 중국에 복잡한 사정이 있고 본인이 소속한 기관에서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바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 난카이대학의 쑹즈용 원장이 만약 쉬이펑 소장이 어렵다면 난카이대학 일본연구원이 2017년 주관기관이 될 수 있다고 자청하였다.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필자가 쑹즈용 원장에게 ‘만약 쉬이펑 소장이 개최가 어렵다고 하거든 쑹즈용 원장께서 나서주면 좋겠다’고 언질을 건네 놓은 상태였다. 쑹즈용 원장의 제안에 대해 모든 참석자들이 동의를 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2017년 개최는 중국 텐진의 난카이대학 일본연구원, 2018년 개최는 일본 교토의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가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각본을 짜놓은 것도 아니었지만, 거의 기적에 가깝게 한자리에서 다섯 번째 주최기관까지 결정되어 버린 것이었다. 발기인을 대표해서 운영위원회 사회를 맡았던 필자로서도 안도할 수 있는 결과여서 아주 기쁘고 다행스런 일이었다. 당시 읍서버로서 참석했던 일본국제교류기금 관계자들도 아주 만족스러워했던 기억이 새롭다. 전도가 불투명했던 ‘협의회’의 장래가 환하게 밝아 오는 순간이었다. 이 회의를 통해 ‘협의회’의 발전과 정착이 제도화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협의회’의 발족 합의 당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4.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의 연속 개최(2017~2019)

송도에서의 첫 번째 ‘협의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다음 개최가 중국 난카이대학으로 확정된 후, 난카이대학의 쑹즈용 원장은 첫 번째 회의의 주최 경험을 청취하고 2017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언을 얻기 위해 필자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해 주었다. 2017년 5월 23일 쑹즈용 원장의 주재하에 텐진 난카이대학에서 필자는 ‘아베정권과 한일관계’라는 제목으

로 강연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협의회’ 결성의 의의를 재삼 확인하고 송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중국 내 일본연구자들에게 ‘협의회’ 구성과 2차 대회 개최의 중요성을 직접 설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측에 제2회 대회를 개최하는 난카이대학에게 필요한 노하우와 자료의 제공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기존의 참가자들과 참가기관, 그리고 준비 요령에서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¹³ 중국 난카이대학 일본연구원의 성의 있는 준비로 ‘협의회’ 제2회 대회도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2017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대회에는 4개국으로부터 총 3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차세대 패널 참가자들이 30명 참가하여 젊은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촉진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다.

제3회 대회는 예정대로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日文研)가 주관하여 준비를 진행하였다. 개최 기간이 관광객이 쇠도하는 10월 말이었던 점과 개최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다른 행사와 동시에 진행하여야 했던 관계로, 제3회 대회는 축소된 형태로의 개최가 불가피하였다. 교토에서 많은 참가자를 위한 숙박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고, 대회 개최시설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었다.

이 대회의 준비 당시 필자는 미국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국은 물론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일본연구기관에서 몇 가지 고충을 알려 왔다. 요약하면, 첫째, 자국 내 기관들의 참가를 독려한 결과 다수의 기관에서 세션 구성을 신청하였는데, 주최기관이 각하한 사례가 다수라는 것이다. 실제로 213개의 발표 신청이 있었으나 주최 측의 사정으로 62개만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이 점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아니었던 것

13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대학교가 준비하면서 EACJS를 활용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지만, 국가 간의 데이터 교환 및 홈페이지 공동 운영에 관한 국제사회의 룰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던 터이라, 난카이대학의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야 했다. 이것은 국가 및 지역 순환 개최 방식이 치러야 하는 일종의 대가인 셈으로, 나중에 회의를 조직한 일본과 대만도 같은 길을 걸어야 했다.

14 주최기관인 일본 국제문화연구센터 자료에서 인용하였다. 일반 패널의 경우 일본 신청자의 26%, 중국은 9%, 한국은 15%, 대만은 25%만 채택되었다.

으로, 기본적으로 자비를 들여 자발적으로 세션 구성을 하는데도 주최 측 사정으로 각하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둘째, 차세대 패널 발표자들의 발표 언어를 일본어로 하고 만약에 영어나 다른 언어일 경우 스스로 통역을 대동해야 한다는 공지였다. ‘협의회’ 발족 당시부터 언어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공식 언어로 하지만 다른 언어도 용인된다는 원칙을 세워 둔 터였다. 또한 가능하면 차세대들이 주제를 묶어 동류의 연구자들과 함께 구성된 세션을 제안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차세대 연구자들이 스스로 비슷한 주제를 연구하는 동료들을 모아 세션을 구성한다는 것은 능력에 부치는 일이었다. 셋째, 선택된 세션의 주제들이 다양하게 구성되기는 하였지만, 인문학이 많이 채택되고 사회과학 분야의 대표성이 적어진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에서 2018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3회 학술대회에는 4개국으로부터 325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러한 우려를 미국에서 전해 들으면서 필자는 ‘협의회’ 설립 당시의 기본 원칙이 출범 3년째에 이르러 다소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하였다. 앞으로 수년이 지난다면 본래에 구상했던 원칙과 규범들이 자칫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필자는 미국 체류를 핑계로 불참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교토까지 날아가기로 했다.

교토 대회 참석한 마지막 날인 2018년 10월 29일 개최된 ‘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기인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몇 가지 사항을 결정하였다. 첫째, ‘협의회’의 세션 구성 방식과 참여 방식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의 규약을 만들기로 했다. 발기인들과 운영위원회 기관들의 대표들이 발족 당시 약속했던 사항들을 기반으로 규약을 만들고 나중에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자는 아이디어였다. 말하자면 ‘협의회’를 보다 제도화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자는 취지였다. 둘째, 운영위원회의 구성도 보다 제도화하여 각 국가 및 지역별로 대표적인 3개의 기관으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증원하는 등 조정해 가기로 했다. 그리하여 발기인 5명 이외에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대표하는 12개 기관의 대표자를 합쳐 1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옵서버로 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2018년 대만에서의 ‘협의회’ 개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한편, 2019년 ‘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4~5년간의 개최지 및 주최기관을 정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도 대략 2018년 이후 개최가 가능한 기관들을 거명하고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도 있었다.

교토 회의 이후 미국 워싱턴에 돌아온 필자는 바로 ‘협의회’ 규약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우선 필자가 원안을 만들고 이메일로 받기인 5명이 원안을 공유하여 수정 보완한 다음, 옵서버이긴 하나 관련된 업무가 많은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하고, 운영위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는 방식을 취했다. 11월 초 착수했던 작업이 완결된 것은 2018년 12월 26일이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협의회’ 규약이 공식 결정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별첨자료〉 참고).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만에서 열린 ‘협의회’ 제4회 대회는 쉬싱칭 총장의 솔선 수범하에 모범적으로 조직 및 운영되었다. 2018년 말 규정된 규약을 바탕으로 대만의 사정을 반영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용한 것이 인상적이었다.¹⁵

대만 대회에는 357명의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410명이 참가하여 일본 연구자 네트워크의 새 장을 열었다. 특히 대만 대회에 참가한 차세대 패널 연구자들의 연령층이 아주 젊어지고 의욕 있는 연구자들로 구성된 것이 인상에 남았다. ‘협의회’가 지향하는 하나의 목표가 차세대의 양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과 대만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많은 일본연구자들이 참석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웠다. 2020년 1월 대만 총통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만과 중국의 관계도 긴장되고 있었던 것이 이유였다. 순수한 학술교류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정에 의해

15 쉬싱칭 소장은 2018년 대만국립대학에서 중국문화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19년에 동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

많은 중국 연구자들이 합류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다음 번 대회에는 참석이 기대된다는 점이 다행이었다.

대회가 끝난 후 2019년 11월 3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정해졌다. 첫째, 2018년 12월 26일 제정된 규약을 재확인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향후 운영위원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각 국가 및 지역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받아들이되 적어도 ‘협의회’ 학술대회를 주최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진 기관이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2019년으로 한국-중국-일본-대만이 한 번 순환하였기 때문에 다음 개최지를 협의하여 조정하였다. 2020년은 한국의 고려대학교 개최가 확정되어 있었고 전임 서승원 원장과 현임 정병호 원장이 참석하여 대회 개최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참가를 당부했다. 2021년의 경우 당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이메일을 통해 쉬이핑 소장의 의사를 확인한 바탕 위에서 베이징외국어대학 일본연구센터의 개최로 하였다. 2022년은 일본의 개최 순서로 도모쓰네 도쿄외국어대학 국제일본학센터 소장이 개최 용의가 있음을 밝혀 도쿄로 결정되었다. 2023년 8회 대회는 다시 대만의 순번이었는데, 쉬싱칭 총장을 중심으로 조정한 뒤에 반드시 대회 개최를 실현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운영위원회를 마쳤다.

5. 글을 맺으면서

이 글은 ‘협의회’를 구상하고 조직하며 유지해 온 경험을 대표발기인이었던 필자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다. ‘협의회’ 구성이 4년 이상을 경과하면서 잊혀질 수 있는 네트워크화의 기억을 비교적 상세하게 남기고자 하였다. 후일 동 ‘협의회’가 더 발전하고 혹시라도 학회로의 발돋움이 이루어질 시기가 온다면 어떠한 배경에서 이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어떠한 과정과 아이디어를 모아 ‘협의회’ 구축에 이르렀는가를 연대기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협의회’의 발상은 필자의 주창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조직화하고 발전시킨 데는 5명의 발기인들과 국제교류기금의 도움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따라서 ‘협의회’ 구축의 전체상 파악은 ‘라쇼몽’(羅生門)과 같은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다각적인 분석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필자는 ‘협의회’ 구상을 최초로 제기한 장본인으로서 자신의 시각에서 본 ‘협의회’ 구축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보다 더 큰 그림의 전모 파악은 후일 다른 연구자들의 협업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각 나라들과 지역에서의 사정은 내부적 역학에 정통한 발기인들과 연구기관장들의 이야기가 짜집기처럼 이어질 때에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단기간 내에 네트워크형 조직화에 성공한 ‘협의회’가 분명 ‘국제공공재’로 자리잡은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처음 출범할 당시 과연 이 조직이 수년의 풍화를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의 목소리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4회에 걸친 성공적인 국제학술대회의 개최에 이어 8회까지의 개최지와 주최기관이 확정되면서 ‘협의회’ 지속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은 거의 사라졌다.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속’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구처럼 ‘계속하는 것이 힘’(続くのが力)임에 틀림없다. 또한 ‘협의회’가 앞으로도 공공재로 남기 위해서는 ‘개방성’의 유지가 중요하다. 닫혀 있는 조직은 강해질 수 없다. 간혀 있는 물이 썩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협의회’가 발전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열린 네트워크’로서의 성격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세대로의 ‘세대 간 계승’이 서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면밀한 배려가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협의회’에 더 많은 젊은 일본연구자들이 지역이라는 단위에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행동하는 가능성의 영역을 넓혀 갈 때 ‘협의회’는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믿는다.

동아시아 일본연구자협의회 운영 규약(2018년 12월 26일 제정)

1. 명칭

이하 조직은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East Asian Consortium of Japanese Studies, EACJS; 이하 ‘협의회’)”를 공식 명칭으로 한다.

2. 목적

협의회는 동아시아 지역의 일본 연구기관, 학회, 관계 조직 간의 제휴를 확립하고, 긴밀한 관계를 통한 일본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월경’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국 한정적인 일본 연구에 갇히지 않고, 국제적으로 개방된 일본 연구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을 통해 학제적 일본 연구를 진흥하고, 일본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다. 그리고 협의회의 활동에 의해서, 차세대의 젊은 일본 연구자의 육성과 교류를 깊게 하고 일본 연구의 활기 있는 ‘미래’를 목표로 한다.

3. 회원의 구성과 자격

- (1) 상기 목적에 찬성하는 학술·연구기관이나 개인 연구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일본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 또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연구자를 회원으로 한다. 협의회 참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도 회원으로 한다.
- (2) 협의회 개최의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회원으로 한다.
- (3) 회원은 운영 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해 제언하거나, 협의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4. 협의회의 활동

- (1) (기본활동) 협의회는 연 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기본활동으로 한다.
 - 매년 하반기(시기미정)에 2박 3일의 대회를 연다.
 - 대회는 매년 개최지를 바꾸어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최의 순서와 다음 연도 이후 국제학술대회 주최기관은 운영 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2) (학술교류) 학술대회의 개최 이외에, 참가 기관 상호의 연구정보의 교환, 학술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진흥한다.

(3) (기타) 기타 활동에 관해서는 운영 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5. 운영 위원회

(1) (역할) 운영 위원회는 협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한다. 협의회의 운영이나 주요 결정은 운영 위원회에서 한다.

(2) (구성) 운영 위원회는 협의회 설립에 관계한 발기인 5명과 각국, 지역의 일본 연구기관으로부터 호선된 자로 구성된다.

-운영 위원 구성은 각국, 지역에서 균등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발기인 이외의 운영 위원은 소속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한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옵서버로서 운영 위원회에 참가한다.

(3) (임기) 운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재임이 가능하다.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새 운영 위원은 운영 위원 총회에서 결정한다.

-협의회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 만료에 따른 새로운 운영 위원의 가입은 전체 운영 회원의 3분의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위원 변경) 운영 위원의 교체에는, 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연차 총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경우, 문서 등을 통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운영 위원에서 탈퇴하고 싶은 경우 운영 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해, 운영 위원회의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5) (위원장과 임기) 운영 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학술대회 개최국·지역의 대표자나 주최기관의 대표자로 한다. 임기는 해당연도 대회 종료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대회 개최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6)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또 회원 자격 심의나 운영 위원회 구성 변경도 마찬가지로 결정한다. 결정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6. 국제학술대회 조직에 관한 사항

- (1) (참가 원칙) 협의회에 소속된 기관의 참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패널 발표에 참가 의사를 가지는 기관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는 기본적으로 자유로 하며, 참가 자격의 제한, 심사는 없다. 연구자 개인 발표 신청도 가능하다. 개인 발표의 신청의 경우, 주최 기관은 패널 구성을 조정한다.
- (2) (패널 발표) 대회의 패널 발표는 다음 4가지를 기본으로 한다.
 - 기획패널: 주최기관이나 운영 위원회가 기획한 패널
 - 공모패널: 참가 기관이 패널 참가자를 정해서 응모한 패널
 - 자유참가 패널: 개인 참가에 의한 패널
 - 차세대 패널: 박사과정 재학생의 젊은 연구자 패널
- (3) (사전등록) 패널에 응모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주최기관이 운영 위원회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 기간까지는 사전 등록해야 한다. 주최기관은 가능한 대회의 6개월 전까지 응모의 기본 원칙, 방법, 시기를 발표한다.
- (4) (비용) 대회 참가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참가 기관이나 개인의 참가비, 항공운임, 숙박비 등의 기본비용은 자기부담으로 한다.
 - 발기인이나 운영 위원에 대해서는 지원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참가비 전액 또는 일부가 부담될 수 있도록 한다.
 - 차세대 패널로 선정된 젊은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참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5) (차세대 패널 발표자 선정) 차세대 패널 발표자 선정은 다음과 같다.
 -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일본을 주된 연구주제로 하는 박사과정 재학생의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 발표자 선정은 주최기관과 운영 위원회의 협의에 의한다. 선정에 있어서 발표자의 출신국이나 지역을 충분히 배려한다.
 - 응모자는 개인 참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패널을 짜서 응모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 (6) (언어)대회 사용언어는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한다. 다만,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일본어 이외의 발표나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
- (7) (패널 구성) 패널 구성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 패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패널 구성에는, 참가 기관의 나라나 지역 출신 이외의 연구자를 1명 이상 포함한다.

(8) (주최 기관의 통지 의무) 대회 주최기관은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주최 기관은 대회의 기본 계획, 패널 응모 시기나 요령 등에 관해서 대회 개최 6개월 전까지 일본어와 영어로 발표한다.

-주최 기관은 대회에 관한 연락처를 발표하고, 참가자의 질의에 응한다.

(9) (리셉션과 홍보) 대회 주최기관은 다음 행사를 배려한다.

-대회 기간 중 최저 1회 전 참가자를 모은 리셉션을 개최한다. 그 비용의 일부는 참가비에 포함된다.

-차세대 패널 참가자에 관해서는 상기의 것과 별도로 집회나 간담회를 열어, 젊은 연구자끼리의 친목을 다진다.

-대회 중 참가 기관의 홍보나 전시가 가능한 공간을 준비한다.

-대회 중 참가 기관이나 지원기관이 교류회를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7. 기타

이상의 규정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본 운영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